월요광장

공공 디벨로퍼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정부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도심 공공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심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처럼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이 가능한 양질의 입지가 공공택지로 지정돼,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대거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기존 도심 개발은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가 다수였고,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일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공급 대책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30만 호의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이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부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공공택지)로 지정해 신도시를 조성하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 세 가지 유형의 도심 부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도심 개발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심 내 공급이라는 게 자투리땅을 찾아서 공급하는 수준이었고, 기존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 수단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도심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모델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민간 주체가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사업 조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2분의 1 동의만 하면 수용이 가능했던 공급 촉진 지구 등 다른 사례에 견줘 엄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공이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줍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건설사의 광고 문구이다. 얼마 전 초등학생 사이의 주거 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월세나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월거지' '전거지'와 같은 은어가 유행하고 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성한 '휴거' '엘거'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듯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얼마 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내용을 보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투자 가치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친근하고 익숙하거나 광고 호감도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LH나 도시공사의 브랜드는 앞에서 말한 취약계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도 앞에서 말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해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품질에 대한 신뢰에 더해 프라이드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주거 문제는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도 단연 최고 이슈 중 하나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평형과 부대시설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피해자들이 힘겹게 법정 싸움을 해 나가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주거 복지 차원의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면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행정과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의 잠재력을 예측해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기획·용지 확보·설계에 참여하는 등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 부동산 개발 사업자, 즉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하루살이와 하루

박용수
수필가·광주동신고 교사

안경 너머로 무언가 윙윙거린다.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를 보면서 누구나 궁금해 한다. 정말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않는지. 그래서 하루살이를 불쌍히 여겼다. 고작해야 하루 이틀 사는 하루살이, 내일이 없는 그들과 달리 우린 마음껏 오늘을 낭비하며 호기를 부렸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환갑이다. 올해 우리가. 몇 해 전만 해도 동창회다 해외여행이다 운운하며 우쭐했던 녀석들이다. 그런데 요즘 누가 환갑 잔치하느냐며 우리끼리 소박하게 지내잖다. 흰머리도 부쩍 늘었고 노송 껍질같이 목주름이 장난이 아니다.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며 부쩍 노인 티를 낸다.

청춘이 없지 않았다. 누가 아파트 평수를 늘렸고 건물을 샀으며 승진을 하였다며 떠들었고, 심지어 누군 애인이 몇 명이고 요즘엔 누가 바람을 피운다며 수군거렸다. 그때가 봄날이었다.

봄날은 짧다. 수많은 하루살이가 군무를 벌이던 여름날도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어느새, 팔다리 무릎이 아프다고 한숨을 쉰다.

바람이랄까. 한바탕 휙 불고 지나가 버린 봄바람 같은 것이 청춘이다. 무더운 여름날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사라져 버린 것이 중년이었던 것 같다. 누군 퇴직을 했고, 또 사업에 망해서 귀향했고, 또 누군 부모 병간호로 바쁘단다. 벌어둔 돈은 없고 들어갈 일만 생긴단다. 이제 초겨울인데 마치 한겨울인 양, 모두 매운 겨울 걱정을 한다.

꼭 하루 같다. 육십여 년이, 간혹 열심히 산다고 촌분을 아껴 산다고 했건만,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 하루이고 그 하루가 육십 년이었다. 정치적으로 시비를 가르고, 종교적 이념으로 악다구니를 쓰고, 재산이나 자식 문제로 낯을 붉혔던 일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가로등 불빛을 향해 무더기로 날아드는 하루살이 떼를 보면서, 하루살이라고 그 얼마나 조롱하며 깔보았던가. 실상 내 삶 역시 하루와 하루가 합해서 한 달이 되고 십 년, 백 년이 된다 해도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다름없는 하루살인 것을.

저 불꽃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무모함이 자기 세계가 옳다고 우기던 우리의 무모함과 그리고 늙었다고 하는 신세 한탄과 무엇이 못하단 말인가.

그랬다. 사춘기엔 적당히 방황하고, 결혼해서는 아이 키우기 바빴고, 좀 시간이 생겼다고 잠시 낮잠 좀 자고 나니 60년이 물 흐르듯 가버렸다.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시간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순간'이라던 간디의 말처럼 얼마나 난 내 삶을 진중하게 성찰해 보았던가. 한없이 가벼움만 찾아 웃고 마시고 잠자는 본능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길들어 산 나야말로 수백 수천 마리 하루살이였던 것을.

"정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하루살이에게 배운다. 하루를 살기 위해, 한순간을 비상하기 위해, 수중과 지상에서 스무 번 넘는 탈피, 그 무던한 준비와 기다림, 그리고 뜨거운 사랑,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하루를 사는 법을. 본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내 하루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보다 나은 바 없다.

기 고

지방 공항 국제노선 분배로 국가 균형발전을

정성배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경제·인구·문화 등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지나칠 정도로 큰 수도권 중심의 나라이다. 특히 지방 공항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객이 수도권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누적 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 공항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내놓은 '최근 5년 국내 공항 손익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 공항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공항이 전남의 무안공항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의 2018년 자료에서도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열한 개가 적자 운영이었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공항은 역시 무안공항이었다.

그런데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규 건설 네 곳(가덕도·새만금·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확장 네 곳(무안·청주·서산·울산 공항)을 포함한 8대 지방 공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에 가덕도 신공항에만 무려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된다. 기존 지방 공항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당에 추가로 8대 지방 공항을 신규 건설 또는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 공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를 메꾸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국민 혈세 낭비는 자명해 보인다. 이렇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공항 문제는 지역 경제, 지방 인구 확보, 지역 관광 등과 맞물려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지방 공항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노선 지방 분배를 제안해 본다. 이는 국제 항공 노선을 전국 지방 공항에 분배하여 특화하는 방법으로 강원권 공항은 우리나라의 동해와 가까우니 미주 방향 노선을 분배하고, 경상권 공항은 남쪽 지역인 남태평양 방향 노선을 분배하며, 호남권 공항은 우리나라의 서쪽 방향에 위치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방향 노선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지방 공항 국제노선 분배가 실행된다면 석유 정제유 가운데 가장 비싼 항공유가 절약되어 항공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 공항과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제노선을 각 지방 공항으로 강제 할당해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억지로라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특정 분야·특정 사람·특정 지방에 편중된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의 인구 비율과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가 이어지길 바란다.

각국의 관광객과 전 세계 산업 바이어가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으로 찾아오고 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각 지역 주민들이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을 위해 서로 다른 지방의 공항을 찾아가고 이용하면서 각 지방에 사람들이 넘쳐 지방 경제가 들썩들썩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꿈꿔 본다. 지방의 균형적 발전은 실제 한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社 說

'전남 최고, 광주 최저' 엇갈린 사전 투표율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에서 전남 지역 투표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전국 1위다. 반면 광주의 사전 투표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0.62%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14%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을 10.42%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강원이 25.2%, 전북은 24.41%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4년(18.05%)과 2018년(31.73%)에도 전국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및 경선을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박빙 선거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주는 17.28%로 대구(14.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에는 23.65%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다. 특히 광산구는 13.58%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 달성(12.61%)과 달서(13.1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광주의 투표율 하락에는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선거구 절반 이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유권자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 다른 지역을 웃도는 높은 투표율로 유권자들의 높은 주권 의식을 보여줬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 투표에도 지역 일꾼은 내 손으로 뽑는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지역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 서둘러야

전국의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86곳 가운데 67.4%(58곳)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에는 운남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목포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시설 세 곳뿐이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김만호 책임 연구위원이 최근 '광주·전남 어린이 문화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연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러한 실태는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문화시설 역시 그곳에 편중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어린이 문화시설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까지 차별과 홀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민간 영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 영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립형 어린이 문화시설을 광주와 전남에 한 개소씩 우선 추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시설을 배분해 '어린이 소리과학관'(남중권), '어린이 미디어아트미술관'(서남권), '어린이 남도음식박물관'(북부권) 등 오감 콘텐츠를 브랜드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 조직에 어린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해 복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어린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할 '어린이(문화)재단' 설립도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해 열악한 지역 어린이 문화시설부터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어린이 문화바우처 사업 등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김현승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은 지성적 감수성으로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열었던 시인이다. 적잖은 시인들이 시류에 영합한 글을 쓰거나 시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그는 문학의 본질을 추구했다. 다형을 일컬어 '한국의 엘리엇'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비 정신을 토대로 지적이면서도 모던한 문학을 지향했기 때문일 터다.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난 다형은 부친인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1919년 양림동에 정착했다. 비록 고향은 평양이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그의 텃자리가 광주인 것은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소년 김현승은 당시 선교사들이 정착한 양림동에서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바라보며 맑은 시심을 키웠다.

최근 1950년대 조대신문에 실렸던 다형의 시가 발굴돼 관심을 끌었다.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다형 김현승의 시간'에는 조선대 재직 시절 학보에 발표했던 시와 산문이 수록돼 있다. 특히 '희망'이라는 작품은 가장 최후에 엮은 전집에도 실리지 않은데다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시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

("희망./ 너의 잔뼈가 자라는 땅은./ 언제나 거칠고 외로운/ 나의 마음// 너를 세워/ 지표 우에 못 박으면,/ 너는 어둠에 빛나는 나의 십자가// 너를 깊이/ 음부에 파묻으면/ 너 또한 순금처럼 더욱 방순하여 지더라…") 시인은 세파에 휩쓸린 어둠의 시간일지라도 푯대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빛나게 되리라고 노래한다.

혹자는 오늘의 시대를 전망 부재의 시대라고 한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물가와 대출 금리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채 사생결단의 싸움만을 반복하고 있다. 장삼이사들의 눈물겨운 삶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는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인 듯하다.

/박성천 문화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